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이 15~19일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우승을 차지한 ‘엘리아스’ (사진 위)와 결선 진출팀 ‘시나비’의 공연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거리의 리듬, 축제를 물들이다

“바람도 선선하고 노래도 시원해서, 스트레스로 답답했던 가슴이 뽕 뚫리는 것 같아요.”

5·18민주광장 위로 한 줄기 조명이 쏟아지자 관객들의 합성이 터졌다. 기타 줄이 통겨지고 드럼이 리듬을 쫓아간 도심의 공기가 달아올랐다. 광장은 어느새 거대한 콘서트홀이 되었고, 시민들은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축제의 밤을 만끽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4회 광주 버스킹월드컵’이 닷새간의 여정을 마쳤다. 올해 축제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세계 음악 시장과 직접 맞닿는 ‘글로벌 쇼케이스형 축제’로 진화하며 충장축제의 열기에 새로운 리듬을 더했다.

광주 버스킹월드컵은 전 세계 거리 예술가와 뮤지션들이 모여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는 국제 음악 축제다. 올해는 국내 18팀, 해외 14팀 등 총 32개 팀이 본선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사운드로 관객과 호흡했다. 공연은 5·18민주광장의 ‘저니스테이지’와 ACC 하늘마당의 ‘그린스테이지’에서 번갈아 진행됐다.

16강에 오른 ‘핫클럽디록커블리’ (Hot Club de Rockabilly)는 재즈·록·어우스틱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청춘의 감성과 일상을 진솔하게 풀어낸 자작곡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기타, 바이올린, 색소폰, 드럼이 어우러진 복고풍 사운드에 시민들은 자연스레 손을 흔들고 박자에 몸을 실었다.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소니 케이시는 서정적인 기타 선율과 차분한 목소리로 낭만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연인과의 이별 등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작곡은 버스킹의 본질인 ‘진심의 음악’을 고스란히 전하며 뜨거운 광장에 잔잔한 위로와 여운

국내외의 32개 팀 라이브 무대

“글로벌 쇼케이스형 축제로 진화”

‘엘리아스’ 골든 버스킹상 영예

을 남겼다.

올해 본선 무대에는 ‘추천곡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참가 뮤지션이 창작곡 외에 관객이 제안한 K-POP이나 팝송을 부를 경우 가산점을 받는 방식이다. 무대에는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아바의 ‘Dancing Queen’ 같은 팝 명곡부터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등 K-POP까지 익숙한 멜로디에 각 팀의 개성을 더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며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19일 최종 결선에는 코모로·프랑스 ‘엘리아스’, 태국 ‘헬리콥터 세컨핸드’, 한국의 ‘시나비’, ‘크랙샷’, ‘뿔갱스’가 올랐다. 이들은 각자의 색깔로 축제의 마지막 밤을 물들였다.

첫 무대의 포문은 ‘뿔갱스’가 열었다. 전통 타악과 판소리에 현대적 K-POP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한 무대는 감각적인 에너지를 자아냈다. 특히 자작곡 ‘장타령’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환호했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익숙한 후렴이 울려 퍼지자 시민들의 어깨는 절로 들썩였다.

이어 등장한 포스트 글램 메탈 밴드 ‘크랙샷’은 록과 메탈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쏟아냈

다. 거칠었던 기타 리프와 파워풀한 드럼, 몸을 내던지듯 터져 나오는 보컬의 열정이 맞물리자 관객들은 순식간에 무대에 빨려들었다. 흰머리 성성한 어르신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구르고 점프하며 리듬을 타는 모습이었다.

이날 골든 버스킹상(1위)의 영예는 ‘엘리아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섬의 리듬과 록의 강렬한 에너지를 결합한 독창적인 사운드로 무대를 압도했다. 보컬 엘리아스 밴 조마의 거친 음색과 드럼, 베이스가 빚어낸 리듬은 도심 한가운데를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은 국경을 넘어선 음악에 환호로 답했다.

결선 심사에는 시민심사위원 30명이 직접 참여했다. 시민들은 몰입도, 창의성, 관객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엘리아스는 “가장 강렬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실버 버스킹상(2위)은 크랙샷, 브론즈 버스킹상(3위)은 헬리콥터 세컨핸드가 차지했으며, 시나비와 뿔갱스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수상자들에게는 1등 상금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40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함께 음원 유통, 홍보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또 이번 대회는 세계 주요 음악 페스티벌 감독 1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단순한 경연을 넘어 ‘쇼케이스형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무대가 세계 음악 시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이자, 새로운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지 기대가 모인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lotus story’

정미희 작가는 “여성은 연꽃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생명을 잉태하고 인내와 타협으로 세월을 견뎌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연꽃의 이미지는 수수하면서도 단아하다. 연꽃에 함초름히 피어난 연꽃은 여느 꽃과 다른 인고와 절제의 미덕을 발한다.

하지만 정 작가의 화폭 속 연꽃은 고전적인 연꽃의 이미지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화려하면서도 강렬하며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진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단장 김정희)과 케이워터운영관리 영산강문화관(관장 신성규)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진행 중인 정 작가의 개인전은 연꽃의 본질과 꽃말 등을 환기한다.

주제인 ‘Lotus Story’ (연이야기)는 진흙 속에

강렬한 연꽃 향기

정미희 개인전 ‘연이야기’

11월2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서도 청아하고 맑은 꽃을 피워내는 연꽃을 모티브로 우리의 삶, 나아가 여성들의 서사를 사유할 수 있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동양적 미감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연꽃들로 그윽하다.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색깔은 모진 세월을 견뎌낸 시간이 선명한 은전이다. 무엇보다 진흙이라는 질곡의 환경을 견뎌내고 피워내는 향기는 무엇에 비할 데 없이 은은하다.

‘연꽃의 이야기’에는 작가의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도 담겨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가로서의 여정, 예술을 향한 열정 등이 투영돼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 작가는 “사회의 억압속에서도 자신만의 역할과 길을 찾아온 여성들의 모습을 더러움속에 묻지 않는 연꽃하고 닮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연(蓮)에서 나의 삶과 인생을 찾았고 이를 작품으로 담아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작가는 지금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국내외 초대전,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각국의 현대미술 전시에 초대된 바 있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싱어송라이터 듀오 옥상달빛, 24일 광주예술의전당 포커스 무대에

출근과 퇴근, 등교와 하교.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피로가 차곡차곡 쌓이다보면 숨을 고르기조차 힘든 순간이 온다. 이럴 때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다정한 목소리가 있다.

“수고했어 오늘도 /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싱어송라이터 듀오 옥상달빛이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기획공연 포커스(Focus) 무대에 선다.

광주예술의전당은 포커스 시리즈를 통해 장르의 다양성을 조명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꾸준히 마련해왔다. 이번 공연 역시 옥상달빛 특유의 솔직한 가사와 서정적인 선율로 관객들에게 공감과 휴식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옥상달빛은 김윤주와 박세진으로 구성된 여성 듀오다. 2011년 정규 1집 ‘28’으로 데뷔한 뒤 ‘수고했어, 오늘도’, ‘하드코어 인생아’, ‘없는 게 메리

트’ 등 현실의 무게와 소소한 일상을 노래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어왔다. 담백한 노랫말과 따뜻한 음색은 청춘과 직장인, 부모 세대까지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일상형 위로송”의 상징이 되었다.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대표곡 ‘수고했어, 오늘도’를 비롯해 ‘달리기’,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 관객들에게 익숙한 노래들이 연주된다. 라디오와 음원으로 들던 곡들을 현장에서 함께 따라 부르며 관객들은 소소한 휴식과 감성적인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성일 전당 홍보팀장은 “옥상달빛의 음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따뜻한 울림을 줄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작은 침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소설 부문 장병호 ‘징광산 부영새’ 최우수상

시, 정남희 ‘등불을 켜던...’의 4편 아동문학, 서이윤 ‘우리들의 심부름’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2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공모에서 장병호의 ‘징광산 부영새’가 소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부문은 정남희의 ‘등불을 켜던 사람들’ 외 4편, 아동문학 부문은 서이윤의 ‘우리들의 심부름’이 각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제2회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부문별 수상작이 결정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문학상 공모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이 주

관한다.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문학상 공모에는 총 350명의 1247편이 응모됐다. 그 결과 시는 정남희의 ‘등불을 켜던 사람들’ 외 4편, 소설은 장병호의 ‘징광산 부영새’, 아동문학은 서이윤의 ‘우리들의 심부름’이 각각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여순사건을 단편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그치는 서사를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들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심사 기준을 밝혔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여수순천 10·19 평화문학상’ 공모는 여순사건의 상흔과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조

명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را드리며 앞으로도 여순 평화문학상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19일 순천 신대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당선작 낭송, 기념 영상 관람 등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다음은 우수상 수상자들이다.

◇시 ▲ 최형만(이름 없는 사람들 외 4편) ▲ 최병준(두 개의 밥그릇 외 4편)

◇소설 ▲ 김남희(카멜리아섬, 환생) ▲ 장마리(10월과 2월 사이)

◇아동문학 ▲ 김민선(동화, 할아버지 졸업장) ▲ 정용재(동시, 그린 날 외 4편)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